

## 다쏘시스템, 오므론과 협력해 가상·현실 통합 기반 제조 혁신 가속

- 다쏘시스템과 오므론, 버추얼 트윈과 산업 자동화 기술 역량 결합해 산업 생산 혁신 추진
- 정보기술(IT)·운영기술(OT) 융합 통해 분절된 산업 시스템을 AI 기반 소프트웨어 정의 제조로 전환
- 제조업체, 생산 시스템을 구축 전·운영 중 가상 환경에서 검증해 오류·비용·리스크 절감

대한민국 서울, 2026 년 4 월 22 일 - 다쏘시스템(<https://www.3ds.com/ko>)과 산업 자동화 기술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오므론(OMRON)이 정보기술(IT)과 운영기술(OT)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제조업체 및 장비 제조사는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을 통합한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보다 스마트하고 유연하며 고성능의 생산 시스템을 설계, 시뮬레이션 및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많은 제조 현장에서는 제품 설계,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서로 분리된 상태로 운영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단절은 시운전 기간의 장기화, 오류 발생 위험 증가, 그리고 생산 유연성 저하로 이어진다. 다쏘시스템과 오므론은 가상 세계에서의 3D 설계 및 시뮬레이션과 물리적 세계의 로봇, 센서, 생산 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장벽을 해소한다.

이번 협력은 다쏘시스템의 '3D 유니버스(3D UNIV+RSES)'와 오므론의 산업 자동화 플랫폼 '시스맥(Sysmac)'을 결합해, 제조업체가 연속적인 가상 환경에서 생산 시스템을 설계부터 시뮬레이션, 검증, 구축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파트너십의 핵심은 '생산 시스템의 버추얼 트윈(Virtual Twin of Production Systems)'으로, 이를 통해 기업은 실제 설비 구축 이전에 신규 생산 라인 테스트, 로봇 동작 검증, 물류 흐름 최적화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IT/OT 융합을 통해 제조업체는 구축 전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생산 라인은 버추얼 동반자(Virtual Companion)가 적용된 가상 환경에서 설계·시뮬레이션·검증되며, 성능, 안전성, 유지보수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테스트해 실제 구축 이전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생산 라인이 구축된 이후에는 센서, 컨트롤러, 로봇에서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가 버추얼 트윈으로 다시 반영돼, 실제와 시뮬레이션 간 비교, 정밀 조정, 예측 유지보수를 통해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파스칼 달로즈(Pascal DALOZ) 다쏘시스템 CEO 는 “제조 산업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오므론과 함께 우리는 AI 기반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살아있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가상 세계와 현실이 하나의 학습 루프로 연결된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다쏘시스템의 산업 월드 모델은 복잡성을 지능으로 전환해 공장을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자율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반응형에서 예측형으로, 경직된 구조에서 유연한 구조로 산업 시스템을 재정의하고 제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토히로 야마니시(Motohiro YAMANISHI) 오므론 산업 자동화 컴퍼니(IAB) 대표는 “다쏘시스템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OT 와 IT 영역을 통합하는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시뮬레이션 단계부터 실제 구현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통합된 지능형 생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사는 오는 4 월 20 일부터 24 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하노버 메세 2026(Hannover Messe 2026)’ Hall 14, 부스 H74 에서 이번 협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버추얼 트윈 경험과 첨단 자동화 기술이 결합된 생산 시스템 설계, 검증 및 운영 방식을 시연할 계획이다.

###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 3D 설계 소프트웨어, 3D 디지털 목업 (DMU)과 제품 PLM 솔루션:  
<https://www.3ds.com/ko/>

다쏘시스템코리아 소셜채널



##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다쏘시스템은 인류 발전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다쏘시스템은, 1981년 설립 이후 소비자, 환자,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가상 세계를 개척해 왔다. 3D익스피리언스(3DEXPERIENCE) 플랫폼을 통해 AI 기반의 과학 중심 버추얼 트윈을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과 규모에 걸친 39만 개 이상의 고객이 협업하고, 상상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을 창출해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3ds.com](http://www.3d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므론(OMRON Corporation)에 대하여

오므론(OMRON Corporation)은 ‘센싱(Sensing) & 컨트롤(Control) + 씽크(Think)’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하는 글로벌 자동화 기업이다. 오므론은 산업 자동화, 헬스케어, 사회 시스템, 디바이스 및 모듈 솔루션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33년에 설립된 오므론은 전 세계 약 2만 8천 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나은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industrial.omron.eu>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도자료 문의 연락처]

다쏘시스템

정지민 파트너 / PR & Communications 매니저

[jeemin.jeong@3ds.com](mailto:jeemin.jeong@3ds.com)